

I. 통상현안정보

■ 한국산 자동차, 호주시장 점유율 급증

□ 한국산 자동차 판매 급신장

- 금년 들어 한국산 자동차의 호주 수출이 급증하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의 Showcase인 호주시장 점유율이 급증하고 있음.
- 호주자동차산업협회는 호주 사상 최초로 기아차가 Top 10에 진입했음을 알렸는데 금년 4월까지의 판매량은 7,597대로 전년동기비 판매증가율은 무려 70%를 상회, 현지시장에서는 믿기 어려운 대기록으로 간주되고 있음. 아울러, 현대차의 경우도 12,756대를 판매, 전년동기비 58%가 증가 Top 10중 7위를 기록하였음.

< 호주자동차시장 메이커별 Top 10 >

순 위	메이커	2004.1~4월		2003.1~4월	
		수량(대)	점유율(%)	수량(대)	점유율(%)
1	Toyota	62,742	21.1	55,967	20.5
2	GM	55,958	18.8	54,067	19.8
3	Ford	40,016	13.4	38,173	14.0
4	Nissan	19,133	6.4	16,451	6.0
5	Mazda	18,414	6.2	16,283	6.0
6	Mitsubishi	17,895	6.0	22,347	8.2
7	Hyundai	12,756	4.3	8,052	3.0
8	Honda	11,503	3.9	8,895	3.0
9	Subaru	11,165	3.7	9,421	3.5
10	Kia	7,597	2.5	4,461	1.6

(자료원 : 호주자동차산업협회보, 5월)

- 호주 자동차산업은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1930년대부터 자동차산업이 시작되었으며 GM, Toyota, Ford 등 주요메이커들이 현지생산·판매를 하고 있어 세계 자동차시장의 테스트 마켓 역할도 하고 있음. 연간 자동차 판매량은 100만대 수준으로 자동차에 대한 고객의 안목도 높은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 기아차, 인지도 획기적 제고

- 따라서 한국차, 특히 기아차의 이와 같은 약진은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음. 특히 호주시장진출의 역사가 일천한 기아차의 경우 적극적인 판매마케팅이 핵심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기아차는 2002년부터 세계 4대 테니스대회의 하나인 호주오픈테니스대회의 주후원자(Main Sponsor)로 참여하고 있는데, 매년 1월이면 멜버른 거리에는 기아차의 휘장이 거리를 덮는 장관을 볼 수 있음. 전세계 1억명 이상이 시청 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회 기간 중에는 기아차 광고판이 화면에 뚜렷하게 드러나, 엄청난 광고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지시장 구조변화와 신화 창조

- 기아차의 선전은 현재시장 여건의 변화에 따른 행운도 있는 것으로 보임. 즉, 미쓰비시 자동차에 대한 다임러사의 지원거부로 호주내 생산설비를 가동하고 있는 호주 미쓰비시 자동차의 존재가 기로에 있는 상황임. 호주 미쓰비시자동차는 3,000명이 넘는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부품업체까지 합칠 경우 20,000명 이상이 고용위험에 처하는 충격 때문에 호주 산업장관이 직접 일본으로 가서 협상을 벌인바 있으나 아직 전망은 불투명함. 미쓰비시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은 금년 4월기준 6.0%로서 전년 동기 8.2%에서 급감하였음.
- 기아차종 중에 가장 호조를 보이는 차종은 카니발, 프레지오 등 봉고종류인데 카니발은 동종 시장의 점유율이 40%를 넘는 신화를 창조하고 있음. 이외에도 프레지오, 리오 등이 선전 하고 있음. 과감한 마케팅전략으로 호주판 봉고신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아차가 최고급 스포츠차량에서 말레이시아산 차량까지 거리를 누비는 호주에서 한국산 자동차 시장점유율 10%를 창출해 내는 선봉장이 될 전망이다.

(작성자 : 멜버른무역관 노인호 rohik@kotra.or.kr)